



## 한덕수 총리, 겨울철 한파에 쪽방촌 찾아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대책 점검

- 창신동쪽방상담소 관계자 격려 및 독거노인 쪽방주민 방문
- “독거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연락 안되면 지자체·경찰이 즉시 방문” 지시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3일(수) 오전 창신동쪽방상담소(서울 종로구 소재)를 방문하고, 쪽방촌에서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가정을 찾았다.

\* (참석) 이도희 창신동쪽방상담소장, 김경원 서울시 자활지원과장,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

○ 오늘 방문은 겨울철 한파가 시작되면서 추위에 더욱 취약한 쪽방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직접 살피고, 쪽방 주민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돕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□ 먼저 한 총리는 창신동쪽방상담소장으로부터 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담실, 목욕실, 세탁실 등 내부 시설을 점검했다.

○ 한 총리는 “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 부담이 더욱 커지는 않을지,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쪽방 주민들이 연말연시에 더 외로워 하시지는 않을지 염려된다”며,

- “독거 어르신들의 경우, 하루라도 안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긴급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지자체·경찰 등이 즉시 방문·출동하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○ 이어 “정부는 지난달 겨울철 난방비 지원대책\*과 복지 위기가구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”며, “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\* '23.11.2. 산업부 보도자료 참조(“정부,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선제적으로 마련”)

- 또한 “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창신동 쪽방상담소장님과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”고 전했다.

□ 이후 창신동 쪽방으로 이동해, 홀로 사시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, 식사, 난방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다.

○ 한 총리는, “추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많은 만큼 희망을 갖고 지내시라”며, “정부도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보다 관심을 갖고 촘촘히 지원해나가겠다”고 전했다.

○ 또한 “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쪽방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겨울철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잘 살펴봐달라”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.

- ※ (붙임) 1. 창신동 쪽방촌 및 방문시설 현황
- 2.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요약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한레지나	044-200-2290
	사회복지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최단비	044-200-2291



□ 창신동 쪽방 현황('23.10월말)

- (위치)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일대 건물 31개동, 쪽방 239개
- (거주자) 총 188명 거주
  - 기초생활수급자 175명(93.1%)
  - 65세 이상 독거노인 83명(44.1%)
  - 男 166명, 女 22명

□ 창신동쪽방상담소\* 개요

\* 「노숙인복지법」상 노숙인 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, 쪽방 거주자 상담·취업지원·생계지원·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 등 제공

- (개원) '03.4.1. (서울시 종로구 종로54길 29-3)
- (운영법인) 사회복지법인 우리모두복지재단
- (시설장) 이도희 상담소장
- (주요시설) 상담실, 세탁실, 목욕실, 카페, 주민휴게실 등
- (종사자) 상담소장, 상담원, 간호사 등 총 7명
- (주요사업) 쪽방 주민 상담, 일상생활 지원, 위기가정 지원, 주거환경 개선,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, 건강문화 프로그램 제공, 후원금 등 결연 지원 등
- (예산) 서울시 시비 10.9억원 ('23)

□ **추진 방향**

- ①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, ②대상별 맞춤 지원, ③한파 대비 난방·건강 지원, ④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, ⑤따뜻한 동행문화 조성 중점 추진

□ **과제별 추진계획**

① **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**

- (빅데이터 기반 사각지대 발굴) 위기정보\*를 분석하여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명 발굴·점검, 특히 생활요금 체납, 주거 취약계층 겨울철 중점 점검('23.11~'24.3)

\* (위기정보) 단전·단수·건보료 체납·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18개 기관 44종 정보

- (인적안전망 활용)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명예사회복지공무원, 좋은 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·지원

\*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.9만명,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7.4만명, 좋은이웃들 봉사자 6.5만명

② **대상별 맞춤 지원**

- (독거노인) 한파·대설 특보 시 생활지원사(3.4만명)를 통한 어르신 안부 확인, 독거노인가구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(30만 가구, ~'23.12)
- (노숙인·쪽방주민) 「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」 수립, 응급 잠자리 이용 기간 확대(최대 50일 → 무제한), 시설점검 및 독감 예방접종 독려('23.11~'24.3)
- (취약아동)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 위기 가능성 높은 아동 점검('24.1~'3), 3세 아동 안전 전수조사('23.10~'12),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(자자체, '23.11)

\* 예방접종 미접종, 건강검진 미검진, 장기결석,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

③ **한파 대비 난방·건강 지원**

- (난방비 지원)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, 연탄쿠폰 등 난방비 지원,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확대('23.10~'24.4),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신규 감면('23.12~)

\* (에너지바우처) 평균 30.4만원, (등유바우처) 64.1만원, (연탄쿠폰) 54.6만원, (경로당) 40만원, (사회복지시설) 30~100만원(종류규모별 차등 지원), (어린이집) 도시가스 요금 감면

- (예방접종) 65세 이상 코로나19·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시행('23.10~'24.4)

#### ④ **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**

- (생계지원) '24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(6.09%)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향(기준 중위소득 30% → 32%)하여 지원대상 확대('24.1~)
  - \* (기준 중위소득) 540.9만원→572.9만원 (생계급여 최대급여액) 162.0만원→183.4만원 (4인가구 기준)
  -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(기준 중위소득 47% → 48%) 및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 11.1% 인상, 저소득층 주거지원 확대 및 교육기회 보장('24.1~)
  - 민생 현장 홍보를 통해 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생계급여 대폭 인상 등 '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' 집중 안내('23.11~)
- (위기가구 지원) 실직·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인상(4인 기준 162.0만원 → 183.4만원, '24.1~) 및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원 지급('23.10~'24.3)
  - 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 주택 임시(최대 6개월) 제공(118호, '23.9.), 긴급복지 대상자 등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
- (금융 취약계층 지원) 소액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취약계층\*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'소액생계비대출' 지원('23.3~)
  - \* 신용점수 하위 20% 이하, 연소득 3,500만원 이하인 자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대출
- (일자리 제공) '24년 노인(103만)·장애인(3.2만) 일자리 조기 선발 (~'23.12),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(63.3만, '24~)
- (긴급돌봄·일상돌봄) 노인, 돌봄 필요 중장년,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및 일상돌봄 서비스 적극 연계 추진

#### ⑤ **따뜻한 동행 문화 조성**

- (나눔문화 확산) '희망 2024 나눔캠페인'을 통한 집중모금(4,349억원 목표, 전년대비 +309억원), 취약가구 생계·난방 긴급지원, 결식 예방 등 민관 협력 지원
- (자원봉사 활성화)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('24.1), 지역 자원봉사센터-민간 연계 등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

▶▶▶ 민생 현장 방문과 소통을 통해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겨울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